

예비문화도시사업 '문화공유포럼' 개최

군산시·군산문화도시센터, '공생공락을 위한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하여' 주제 진행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진행하는 '군산 문화공유포럼'이 지난 24일 군산 동우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실시된 군산 문화공유포럼은 '공생공락을 위한 문화공유도시, 군산을 향하여'를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군산시, 군산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 참여자를 비롯해 군산시민 100여명이 군산 문화도시사업의 비전인 문화공유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유로운 질의답변의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1부 주제발표 시간에서 카톨릭대학교 정영신 교수는 '새로운 삶, 공유를 넘어 커먼즈'라는 강연을 통해 플랫폼 자본주의가 되어버린 공유경제의 영향으로 그 개념이 오용되고 잠재력이 상실된 공유 패러다임의 쇠퇴 과정과 그로 인해 새롭게 부상하게 된 커먼즈(Commons) 개념을 소개했다.

또 우리 사회의 제도적·문화적 장벽을 넘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커먼즈 운동의 보편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공동자원을 지역 공동체와 시민이 함께 향유하고 관리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이승원 부센터장은 '도시 커먼즈 운동과 문화공유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도시 커먼즈 운동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층위의 다양한 실천들과 연결되어야 하지만, 파편적이고 수동화된 도시문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개인의 삶이 이 연결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시문화를 지배하는 기존 제도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시민 스스로 문화주체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진행하는 '군산 문화공유포럼'이 지난 24일 군산 동우아트홀에서 개최됐다.

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적극 전개되어야함을 당부하였고, 이를 통해 실현되는 문화공유도시 군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군산대학교 박화래 교수는 '공생공락(共生共樂)을 위한 군산의 문화공유도시 전략'을 소개하며 군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부터 사업 구상까지의 경과와 현재 진행 중인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군산이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공유를 주목하게 된 배경이 한 사회의 긍정

적 변화를 매개하는 '문화'의 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는 '공유'의 가치에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함으로써 참석한 시민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공유 개념과 문화도시사업', '군산의 문화도시 비전과 실천', '지역문화와 문화공유', '군산 현황과 문화도시 실현 정책'을 주제로 운소영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원도연 익산문화도시센터장, 김봉곤 군산시 문화관광국장 등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소통하는 패널토의와 질의답변이 진행됐다.

박성신 군산문화도시센터장은 이날 포럼이 시민과 함께 문화공유의 개념과 문화공유도시의 가치를 조명하고 '공유문화'를 넘어 '문화공유'를 지향한다고 선언한 뜻깊은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문화공유도시, 군산' 비전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각에서 제공하는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포럼에 참여한 시민들은 공유의 개념을 문화를 나누고 더 나아가 문화로 공공의 가치를 세우는 일로 이해하게 됐고, 문화도시사업의 활동주체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군산 문화공유포럼은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https://www.kunsan.ac.kr/gunsancc>) 및 SNS(www.facebook.com/GunsanCultureCente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3일 (유)마중길관광호텔 '꽃심'과 호텔 꽃심 세미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술인 복지 증진·메세나 사업 협력

전북문화관광재단-마중길관광호텔 '꽃심' 업무협약 체결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3일 (유)마중길관광호텔 '꽃심'과 호텔 꽃심 세미나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단 고준환 경영기획본부장과 호텔 꽃심 한동일 대표이사(사)가 협약서에 서명, 향후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전북형 메세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두 기관은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운영사업 및 전북형 메세나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의 프로모션 이벤트 지원 및 상호 홍보 △ESG경영·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예술인 및 재단사업 관련 간담회, 워크숍 등 호텔 꽃심 시설 이용료 할인 △호텔 꽃심 임직원 및 호텔이용객 대상 전북 브랜드공연 할인 △양 기관의 복지와 문화예술 향유 및 협업사업 기획·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기타 상호 간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호텔 꽃심은 전주 한옥의 향기와 현대의 편리함을 더해 작년에 첫 대문을 열었다. 한옥마을·경기전·전동성당·전북예술회관이 주변에 위치해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과 호텔 꽃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북도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기입 및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도내 예술인들의 관리 향상 및 처우개선 등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18)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마을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임실군, 문화예술마당 사업 추진... 주민 소통·활력의 장 마련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불가능했던 주민들의 마음의 심적 안정극복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마당'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일환으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마을에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과 활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마당은 그간 공개오디션 등을 통하여 선발된 팀으로 마을에서 자체적

으로 문화예술모임을 갖고 활동하는 동아리로 국악, 밴드, 난타, 시 낭송, 하모니카,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11개 공연팀으로 구성되어 복지 및 문화예술 활동이 필요한 24개 마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월 관촌면 장평마을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장르 불문 주민들에게 익숙한 대중적인 곡들로 구성되어 공연마다 자리를 꽉 채워 만큼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지친 상황 속에서 공연을 통해 주민들이 웃음과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힘들고 지친 주민들의 문화 감수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EMK, 2차 입장 "옥주현, '엘리자벳' 캐스팅 관여 없었다"

뮤지컬 '엘리자벳' 제작사가 최근 불거진 캐스팅 논란 관련 "옥주현 배우의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 EMK뮤지컬컴퍼니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5일 캐스팅 관련 의혹에 대해 옥주현 배우의 어떠한 관여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현재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선스 뮤지컬의 특성상 원작자의 승인 없이는 출연진 캐스팅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며 "'엘리자벳'의 배우 캐스팅 과정 역시 원작자의 계약 내용을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뮤지컬 배우 김효영의 SNS 게시물 이후

옥주현을 둘러싼 '엘리자벳' 캐스팅 논란이 불거지자 EMK뮤지컬컴퍼니는 지난 15일 입장을 밝혔다.

당시 EMK뮤지컬컴퍼니는 "강도 높은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뽑힌 새로운 배우들과 지난 시즌 출연자를 포함해 원작사의 최종 승인으로 선발된 배우들로 캐스팅됐다"며 "라이선스 뮤지컬 특성상 캐스팅은 주·조연 배우를 포함해 앙상블 배우까지 모두 원작사의 최종 승인이 없이는 불가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옥주현은 명예훼손으로 김효영을 지난 20일 고소했다. 이후 뮤지컬 1세대 배우들까지 입장문을 내며 파장이 커졌다. /뉴시스